

유아의 의도 조망과 인지적 단서활용

정 현 심*(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 순 형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유아가 사회관계나 주변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사건과 상황에 내재된 인과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유아는 타인의 내면에 대한 인과적 사고를 통해 타인과 원만한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인지하는 의도 조망과 타인의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인지적 단서활용이 이러한 이해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의 의도 조망과 인지적 단서활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중류층 거주지역 소재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 3세 유아 41명과 5세 유아 41명을 대상으로,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응답은 녹음하여 전사하였으며, 의도 조망은 전사한 후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고, 인지적 단서활용은 전사한 후 분석 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에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반복 측정 변량 분석, t 검정, 쌍체 t 검정, 그리고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되었다.

첫째, 만 5세 유아의 의도 조망 수준이 3세 유아의 의도 조망 수준보다 더 높았다. 이 차이는 일치 과제에서보다 불일치 과제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부정적 의도보다 긍정적 의도의 경우에 의도 조망 수준이 더 높았다. 둘째,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사고반응과 활용반응을 빈번하게 보였다. 5세 유아는 대물단서 이야기보다 대인단서 이야기에서, 일치 과제보다 불일치 과제에서, 사고촉진 질문 전보다 사고촉진 질문 후에 사고반응을 빈번하게 보였으나 3세 유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는 대물단서 이야기에서보다 대인단서 이야기에서 더 많은 사고반응을 보였다. 대인단서 이야기에서 사고촉진 질문 전보다 사고촉진 질문 후에 사고반응을 빈번하게 보였으나, 대물단서 이야기의 경우 사고촉진 질문 전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일치 과제보다 불일치 과제에서 유아가 사고반응을 빈번하게 보였다. 사고촉진 질문 전보다 사고촉진 질문 후에 사고반응과 활용반응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사고촉진 질문 전,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는 단서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고 사고촉진 질문 후, 5세 유아는 단서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의도 조망과 인지적 단서활용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사고촉진 질문 전후,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은 의도 조망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 의도의 유형 및 의도와 결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아의 의도 조망에 차이가 있으며, 연령, 단서의 종류, 정서와 상황의 일치 여부 및 사고촉진 질문 전후에 따라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아의 의도 조망과 인지적 단서활용의 상관관계가 밝혀졌다.